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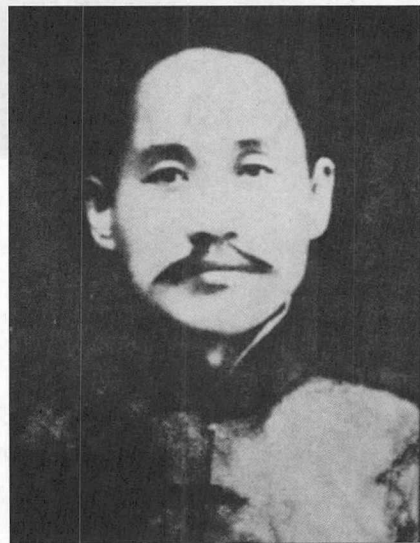


# 평전, 그 인간적인 세계에의 탐닉

## 우리 전기문학의 아쉬움과 가능성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전기문학은 관념적 신비주의나 영웅사관에 치중했다. 독립사상의 고취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지만, 과학적 고증과 기술의 객관성이라는 평전 고유의 성격을 얻지는 못했다. 우리 전기문학의 가능성은 인물을 사실대로 조명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영웅사관이 개입되긴 했지만 신채호는 우리 근대 전기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다.

글쓰기의 여러 장르 중에 '평전(評傳)'이란 분야가 있다. 인물에 관한 기록으로 '전기(傳記)'와 다른 것은, 랑케사학의 정신대로 '과학적인 고증과 기술의 객관성'을 중요시한다.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 해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아니하고 기술한다"는 역사정신이 전한다. 이것이야말로 사가의 춘추필법 정신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경(經)·사(史)·자(子)·집(集)으로 고전과 명저를 구분해왔다. '경'은 유가(儒家)의 경전으로서 문학·철학·역사를 막론하고 유가경전이면 전부 '경'에 포함시키고, '사'는 '경'을 제외한 다른 역사서를 말한다. '자'는 노자·장자·관자 등 사상가들의 저작을 의미하며, '집'은 시와 문장을 말한다. 평생 쓴 것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집'자를 붙였다. 아무개 문집, 전집할 때에 쓴다.

### 평전이 발달할 수 없는 동양적 풍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동양에서는 평전문학이 발달되지 않았다. 물론 군왕이나 영웅호걸의 생애를 다룬 전기는 수없이 써어졌다. 근대만 하더라도 신채호가 《동국거결최도통전》《이태리건국3결전》《을지문덕전》 등 영웅전을 쓰고, 박은식은 《동명왕실기(東明王實記)》 등을 썼다. 이밖에도 역사인물에 대한 많은 전기물이 사가·문인·학자들에 의해 써어졌다.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써어진 영웅전의 대부분이 관념적 신비주의나 영웅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일제'라는 적대국과 대결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시대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근현대의 전기문학이나 평전이 영웅사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

이다. 그야말로 역사적 '영웅'을 무오류의 신비성으로 포장함으로써 민중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린 우를 범한 것이다. 이은상이 지은 이순신장군 관련 저작들도 이런 범주에 든다.

서양의 경우는 달랐다. 비록 신비적인 인물이라도 이를 객관화시키면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평전문학'이 오래전부터 발달해왔다.

르낭(Ernest Renan)이 쓴 《예수의 생애》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프랑스 출신인 르낭은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이어 히브리어·아랍어·시리아어·오리엔트어 등을 습득하는 한편 언어학을 연구했다.

예수의 생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861년에 성지를 방문하고 마침내 1863년에 《예수의 생애》를 썼다. 이 책은 출간되면서 교회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가 강연에서 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보쉬에(Bossuet)의 말을 빌어 예수를 묘사한 것이 문제됐다. 이 말을 르낭 자신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했으나, 교회는 이 '인간'이라는 말에 무신론적 냄새가 풍긴다고 공격해 르낭은 도리없이 교수직을 떠나게 됐다.

### 예수마저도 신비의 차원에서 끌어내린 서양

문제가 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르낭은 《예수의 생애》에서 하느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르낭 자신이 말하듯 역사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종족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용모·특징·혈색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묘사했다.

서구를 들끓게 하고 카톨릭시즘을 분격시킨 이 책의 독자성은 기적의 배후에 있는 자연적 지리학적 사실의 해명, 생생한 자연의 묘사, '비할 데 없는 인간'의 개인적 역할의 중시 등에 있으며 그것은 독일 성서해석 학자의 방법을 더욱 추진시킴으로써 이후 성서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르낭은 당시까지 신격화된 예수의 존재를 '비할 데 없는 인간'의 인물로 그리는데 성공했다. 그는 말했다. "매일 이 세계의 운명을 주재하는 이 고매한 사람을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모든 신적인 것을 흡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로 하여금 신적인 것으로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떼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예수의 생애》, 제23장)

르낭은 또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몇몇 예수의 위대한 측면이 제자의 실수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예수의 많은 실수가 감춰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와 같이 편협한 자존심보다 인류의 이익을 자신의 생활 속에 선행(先行)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었다."(같은 책)

### 부정적인 사실은 애써 외면해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평전에 대한 엄격한 전통 같은 것이 없어서인지 대부분의 인물사가 전기류에 머물고 있다. 주례사와 같은 칭찬 일변도거나 부고장처럼 공격 위주의 전기물이 판을 친다. 그러다 보니 인물을 사실대로 조명하고 평가하는 알짜 평전이 드물다.

정치인물의 평전이 특히 심한 편이다. 정치적 파당성과 편견으로 인해 정직한 기록보다는 미화시키기에 급급하다. 그 대표적인 저서의 하나는 이원순(李元淳)이 쓴 《인간 이승만》이다. 이승만 지지자인 이씨는 400쪽이 넘는 이 책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건국과정에 대해서만 '업적'을 나열하고 독재와 부정선거 부문은 단 몇 행으로 축소한다.

즉, "결국 그의 외교정책이 너무 강경한 점과 국내정치의 부패, 3·15부정선거 등 잇따른 실책

으로 하여 그는 마침내 정치적 실각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취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때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다"는 것이 인간 이승만의 생애를 정리한 책에서 그가 저지른 독재정치 부문의 전부다.

그것도 '정치적 실각'이라 표현해 시민혁명에 의해 타도된 독재자의 최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하야할 때 여러 가지 일화'를 장황하게 나열한다. 이런 유형의 전기나 평전은 그 유족에게 위안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과학적인 고증과 기술의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김학준 인천대총장이 쓴 《이동화평전(李東華評傳)》은 부제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생애'가 말해주듯이 해방 후 민주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벌여온 이동화의 평전이다. 이동화는 일제 때 치안유지법으로 구속되고 지하항일서클을 지도하는 등 항일민족 해방투쟁에 참여한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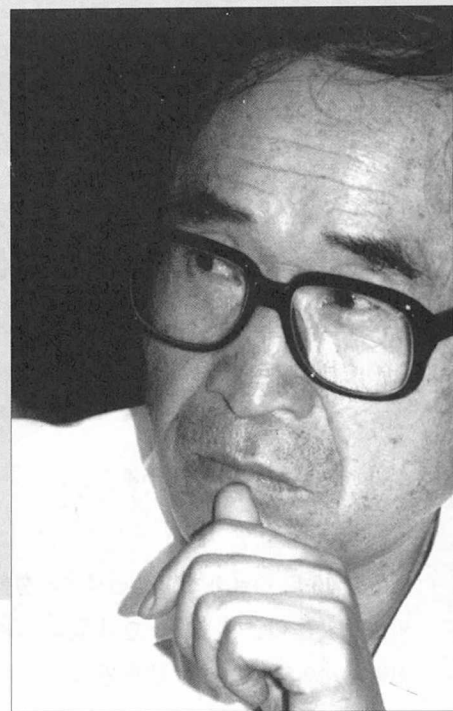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때 도쿄에서 '황색인종의 대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황인사(黃人社)를 설립하고 기관지 《황인공론(黃人公論)》을 발행하면서 미·영을 성토하고 일본의 '팔굉일우'와 황민화정책을 선전했다. 1936년경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는 총독부 학무국과 조선교육회 후원으로 국민학교를 순회하면서 시국동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그 이후 다시 민족진영으로 복귀해 항일운동에 가담하고 해방 후에는 반독재 민족통일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김총장이 쓴 이 책에서는 이씨의 친일행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후학'의 도리상 치부를 들춰내기 어렵다는 인간적인 동정이라면 몰라도, 한 지도적 인물을 연구하는 '평전'으로는 소루(疏漏)한 점이 적지 않다.

### 영웅사관과 신비주의를 넘어서

널리 독서를 하지 못한 까닭이지만, 필자가 지금까지 읽은 평전중에서 유자후(柳子厚)가 쓴 《울곡선생전》과 고은이 쓴 《평전 한용운》이 가장 감명 깊고, 체계나 내용에서 제대로 된 평전으로 남는다.

일제시대 아나키즘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주



《이상 평전》《평전 한용운》《화가 이종섭》 등을 쓴 시인 고은은 중요한 우리 전기작가로 평가받는다.

의적 저술을 남긴 유자후는 1947년 《울곡선생전》을 썼다. 이 책 역시 영웅사관의 맥락으로 울곡의 생애를 그리지만,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행적을 기술했다.

한 구절을 살펴보자. "11월 7일, 울곡선생은 두 명나라 사신의 선생이 돼 두 제자를 좌우에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이 서울로 데리고 들어오니 당시 교만하고 콧김이 센 명사(明使)들이 우리의 대성자(大聖者) 울곡선생의 고정활수(古井活水) 같은 흉해(胸海)에서 깨끗이 세례를 받아 아주 숙늬(熟鹿皮)가 돼 그 부드럽고 그 공손한 태도는 중동교호(中東交好)의 화기가 참으로 양양한 바가 있었다."

고은 씨가 유려한 필치로 쓴 만해 한용운의 평전은 폭포수같이 전개되는 생애의 어느 한 자락도 찢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을 살펴서 글의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동지들은 그의 뼈를 망우리묘지에 파묻어서 한용운의 삶은 여름의 잔디에 덮여 안장됐다. 한용운은 갔다. 한용운은 죽지 않고 간 것이다."●